

2006 독일 월드컵

AGAIN 2002

토고전 4-4-2 시스템 박지성·이영표 공수핵

■ 신문선씨가 말하는 월드컵 G조 예선 '한국 베스트 11'

'골, 골, 골~~~, 골이에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전 국민들에게 특유의 입담과 힘찬 목소리로 4강 신화의 감동을 실감나게 전달했던 축구 해설가 신문선씨. 요즘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듯 하다.

유명 축구 해설가 신문선 SBS 해설위원(사진)이 광주일보 창사 54주년을 맞아 오는 6월 독일월드컵에 출전할 한국 대표팀의 베스트 멤버를 제시했다. 신 위원은 "앞으로 선수들의 컨디션과 각종 경기를 통한 기량 점검 등을 통해 최종적인 베스트 멤버를 짜야한다"면서 "다만 이종국이 빠진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베스트 멤버를 나름대로 구성해 봤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종국의 부상, 현재 활동중인 선수들의 컨디션 등을 바탕으로 토고, 프랑스, 스위스전에서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 베스트 멤버를 2가지 과제라는 틀에서 압축했다.

프랑스전 김남일·이천수·이호 등 MF 5명

첫째로 토고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둘째로 프랑스, 스위스전에서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선 수비, 후 기습'의 전술구사 멤버를 제안했다. 이같은 전략이 들어맞는다면 16강 진출은 가능하다는 게 신 위원의 분석이다.

신 위원은 또 최근 십자인대 파열로 재활에 돌입한 이종국을 배제하고 골키퍼는 이운재를 불박이로 앉혔다.

▲1차전 토고(4-4-2)

4-4-2는 수비수를 4명으로 늘리는 대신 양쪽 사이드에 있는 2명의 수비수를 원백으로 활용, 공격과 수비시에 우위를 점하는 포메이션이다.

수비는 송종국과 최진철, 김진규, 이영표가 맡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유럽의 공격수들을 철저히 막아냈던 최진철과 김진규가 안방을 지킨다.

송종국과 이영표는 빠른 스피드로 경기 중 쉴 새 없이 공수를 넘나든다. 다만 송종국이 힘들다면 이영표를 왼쪽으로 돌리고 이 자리에 김동진으로 대체한다.

미드필더는 왼쪽 설기현 또는 정경호, 중앙 박지성(공격형), 김남일(수비형), 오른쪽은 이천수를 배치한다. 공격은 박주영과 조재진을 내세운다.



박주영은 결정적인 순간 한국의 골 가문을 해소할 청량제다. 조재진은 이종국의 대체 카드로 큰 키를 이용한 헤딩슛이 강점이다. 후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안정환을 교체 카드로 활용한다.

▲2차전 프랑스(3-5-2)

3-5-2는 프랑스가 티에리 앙리와 다비드 트레제게 등을 앞세운 투톱형태인 4-4-2로 나올 경우를 예상하고 만든 포메이션이다.

3-5-2는 미드필더의 숫자를 5명으로 늘리고 중앙부터 타이트한 압박을 펼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전술이다.

수비는 최진철, 김영철, 김진규가 책임진다. 김영철은 대인 방어만큼은 국내 선수중 최고로 손꼽힌다. 따라서 '득점 기계' 앙리나 트레제게 중 1명의 발을 묶어낼 수 있는 카드다. 미드필더는 왼쪽 이을용, 중앙 박지성(공격형), 김남일, 이호(수비형), 오른쪽 이천수다.

토고전과 비교해 이호와 이을용이 추가되고 설기현이 빠졌다. 이을용은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의 위력이 날카로우며 수비 위주의 경기 운용시 기습적인 득점찬스를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격은 역시 박주영과 조재진(후반조커-안정환)이다.

스위스전 유럽축구 경험 많은 설기현 기용

▲3차전 스위스(3-5-2)

스위스전은 1,2차전 결과에 따라 각종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한편이다. 스위스는 항상 투톱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한국은 3-5-2가 적당하다.

2차전인 프랑스전과 포메이션이 같기 때문에 포지션별로 큰 변동은 없다. 수비와 미드필더는 그대로다.

다만 공격 부문에서 조재진 대신 설기현이 들어온다. 스위스는 강한 체력이 특징인 만큼 조재진에 비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고 유럽축구 경험이 풍부한 설기현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한다. 후반 조커로는 안정환이 적당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토고전 4-4-2

▲ 프랑스전 3-5-2

▲ 스위스전 3-5-2

